

2020 새 설계

박우량 신안군수

“전략소득사업 집중 육성... ‘돌아오고 싶은 신안’ 만들겠다”



“새해에는 주민 소득 증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금까지 준비해온 성장 틀을 토대로 섬을 잘 가꾸고 만들어서 반드시 오고 싶은 곳, 누구나 살고 싶은 곳,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신안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균형 최우선의 목표인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각종 시책추진으로 벼농사는 마을별, 들녘별로 규모화 있게 발전시키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발농사 기계화도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업 확대와 발농사 기계화사업, 청년 어선·어구 구입비 지원, 고소득 품종인 감·왕새우·개체굴 양식 등을 전략소득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천일염 생산등급제·군수 보증제 등으로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신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도해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더욱 확대해 기초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할 방침이다.

박 군수는 “암태, 자은, 팔금, 안좌 등 중부권과 압해읍을 잇는 천혜의 경관 속에 개통된 천사대교와 계획 중인 비금-주포, 장산-신의 등 13개 소연

친환경농 확대·청년 일자리창출 지원

천사대교 개통 관광객 500만 시대 박차

흑산공항 착공 주민 이동권 확보 심혈

육·연도교 사업들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등 섬의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객 500만시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흑산공항 사업을 착공해 바닷길, 땅길, 하늘길이 열리는 주민 이동권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해양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국제철새 심포지엄 개최, 1100km² 달하는 신안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1004km 갯벌 모실길 조성, 해안선·무인도 관리 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박 군수는 “1도(島)1뮤지엄 사업”을 성공시켜 섬 문화예술 인프라의 모범사례로 제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은선 조각가와 건축 거장 마리오보타가 참여한 ‘인피니토 미술관’, 민중화가 흥성당 화백의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흑산성당의 근대 문화 복원사업, 김환기 선생 ‘자연 그대로 미술관’을 조성한다.

주민들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섬마다 박물관·미술관·전시관을 건립한다.

섬마다 특성에 맞는 꽃나무와 다년생 화초를 심어 그 섬에서 세대가 이어가는 축제의 장도 만들 계획이다.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따른 운택하고 편안한 복지정책도 이어간다.

신안군 공립요양병원 병실을 180개로, 노인대학을 9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낙도 주민들이 이모임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영장을 비롯해 각종 체육시설을 구축하고 1층·1단지 운동장 조성 등 기초건강을 위한 사업에 100억여원을 투입하고 행정복지타운을 건립하게 된다.

신안지역의 햇볕과 바람을 이용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주민소득 창출의 새로운 길도 열겠다는 목표다.

신안군 일원에 원자력 발전소 8기에 맞먹는 8.2GW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지를 건설할 계획이 다.

2020년 주요 사업은

- ▲주민소득을 높이는 농·축·수산업 적극 추진
- ▲다도해의 열악한 환경을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
- ▲천혜의 환경자원으로 해양생태중심 1004섬
- ▲‘1도(島)1뮤지엄 사업’ 섬 문화예술 인프라 모범 사례 제시
-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따른 복지정책 실현
-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지속속진 주민소득 창출

이와 관련 박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주민이 30% 이상 주식·채권 등으로 에너지사업에 참여해 그 만큼 이익을 가져오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전남도와 한전, 전남개발공사 등 유관기관과 송전망 확보 등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이라서 가치가 높고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다는 진취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면서 “군수도 직접 현장을 찾아 모든 문제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함평 해보면 ‘모평마을숲’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500년 된 느티나무·팽나무 등 상곡리 일원 1만925㎡ 방풍림 생태적 가치 높아 체계적 관리



방풍림으로 조성된 함평 해보면 모평마을숲.

함평군 해보면 모평마을숲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됐다.

산림청은 매년 숲, 나무, 자연물, 유적지 등을 대상으로 산림문화 가치 조사·평가를 실시해 생태·경관·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함평 모평마을숲은 해보면 상곡리 일원 1만925㎡ 규모의 방풍림이다.

파평 윤(尹)씨의 씨족 촌락이 형성될 무렵 마을 주변 해보천으로부터 서풍을 막기 위해 조성했으며, 500년 된 느티나무 30그루와 팽나무 12그루 등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또 주변 모평 한옥마을과 송산저수지, 잠월미술관 등과도 잘 어울려 예술·문화적 가치는 물론 친환경 관광자원으로도 체계적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오는 4월

까지 함평 모평마을숲 앞에 지정 안내판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수목 정비를 할 계획이다”며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을 통해 산림문화의 가치와 지역 유무형 자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한층 높아질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현재까지 총 60개소의 국가산

림문화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 함평 모평마을숲을 비롯해 전국 14개소를 신규 지정했다.

함평군 해보면 모평마을숲은 지난해 실시한 제4회 전남도 마을숲 콘테스트에서도 대상을 차지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무안군, 현경면에 건립 추진

무안군은 현경면 용정리 여성농업인센터 인근 기존 농산물 유통시설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미생물 배양센터는 미생물 실험실과 배양실, 저온 저장고 등을 갖춘 고조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연간 96t의 미생물 원액을 배양해 농가에 공급한다.

군은 시험가동을 마치고 오는 2월말 배양센터를 준공해 올 하반기부터 농가에 유용 미생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군은 미생물 배양센터가 건립되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는 물론 기존 농약과 비료 사용량이 최대 20%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이용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향후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해 시설을 증축해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무안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961ha로, 2507ha로 전체 경지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영광군 정보화마을 설 맞아 20일까지 인터넷 특판 행사

영광군 정보화마을(법성굴비마을, 군남용암마을)은 설을 맞아 특산품을 수요자와 직거래하는 인터넷 특판 행사를 개최한다.

법성굴비마을은 굴비의 원산지라는 자부심으로 최신 굴비 생산 유통시설을 갖추고 영광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명성이 높

은 ‘굴비상품(굴비, 오가)’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특판가로 판매한다.

군남용암마을은 농·식품부가 인증한 1등급 생태환경 마을로 서해안의 갯바람으로 자란 모시잎과 무공해 쌀로 빚은 ‘모시잎송편’, ‘4색 떡국떡’, 청정한 환경에서 생산된 ‘태양초 고춧가루’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특판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세얼굴

“e-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 실증 최선”

홍석봉 영광부군수



“전남도민제천 개최와 e-모빌리티 자유특구 규제특례 실증과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28대 영광부군수로 취임한 홍석봉 부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실현이라는 굳건 철학을 이해하고 당면 균형 현안을 신속히 파악해 차질없이 균형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 부군수는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구축, 청년 창업단지 조성, 주민밀착형 사회관계망 구축,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은 만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군수는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5년 구례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전남도 농업국 농산과, 경제통상과 통상협력과장, 투자진흥과, 감사관실 등 주요 부서를 거쳐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장, 환경농업과장, 식량원예과장 등을 역임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신학과(Ph.D.)	○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사회복지학과(D.S.W.)	○
	석사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코칭심리학과(M.Psy.)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20(월) ~ 29(수)
· 전형일: 2020. 2. 3(월)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순수외국인은 본교에서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2,3,4학년 모집학과별 인건명씩 모집한다. 유아교육과 제외
* 한국어교육학과는 2학년 편입생은 순수외국인에 한해 모집함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6(월) ~ 17(금)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20(월) ~ 29(수)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Passion Vision Truth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